ISSUE BRIEF

이슈브리프 287호
(2021. 9.14)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 조용한 자축의 의미

제287호

김보미 한반도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2021년 9월 9일 새벽,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기념하여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심야에 열린 세 번째 열병식으로, 앞선 두 번의 심야 열병식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고 전략무기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 어떤 대외메시지도 없었다. 북한이 비교적 조용한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고강도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현재는 북한 당국이 군의 비군사적 활동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지원에 대한 기대, 기타 인도적 지원과 중국과의 관계 고려 등으로 인해 고강도 무력시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여전히 핵무력을 국가수호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핵무력 중추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군사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 김정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 열병식, 무력시위, 미중경쟁

북한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 조용한 자축의 의미

김보미 (한반도전략연구실)

북한이 9월 9일 새벽 정권수립 기념일(9·9절) 73주년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앞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하여 열병식을 진행한 바 있는 북한이 8개월 만에 다시 열병식을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은 정규군이 아닌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의 주도로 전개되었으며 앞선 열병식들에 비해 작은 규모로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전략무기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김정은 당총비서가 열병식에 참석하였음에도 연설은 하지 않았다. 9월 11일과 12일 북한은 약 6개월 만에 무기시험을 진행하였으나 탄도미사일 시험이 아닌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였다. 신형 전략무기도, 김정은의 대내외 메시지도 없었던 이번 열병식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았다.

민간무력 중심의 소규모 열병식

9월 1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 등에 의해 북한이 평양 인근의 미림비행장에서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었다. 일반적으로 열병식 준비는 최소 행사 1~2개월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권 수립 기념일이나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당 창건 기념 열병식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열병식과 비교하였을 때 준비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열병식은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앞선 두 번의 심야 열병식(2020년 10월 당 창건 기념 및 2021년 1월 8차 당대회 기념)보다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ICBM과 SLBM을 포함하여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형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정규군을 대신하여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무력이 열병식에 참여하였다. 9월 9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번 정권 수립 기념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참여 병력도 국가과학원 종대, 문화예술인종대, 체육인종대, 비상방역 종대와 기계화종대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역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방역종대와 보건성종대 등도 열병식에 참여하였다.

또한 정치국 위원이자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이 김정은을 대신하여 연설하였다. 연설의 내용은 사회주의 건설, 일심단결, 자력자강 등 대내 결속을 강조하였다.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핵, 전략무기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4대 군사노선의 일부인 전민 무장화와 전국 요새화에 대한 강조도 눈에 띄었는데 열병식에 참여한 비정규군인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의 성격을 고려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군이 아닌 민간병력의 열병식 참여는 군의 비군사적 활동의 중요성 강조, 기강확립, 사상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의 경제건설, 사회통제, 방역, 재해복구 등 비군사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이데올로기적 충실성, 당에 대한 부채의식,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적개심 등이 과거보다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병영환경 악화, 식량난 등이 겹치면서 사상이완과 이탈 현상 등의 부정적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강도 무력시위 억제 분위기 지속

북한은 3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약 6개월 동안 눈에 띄는 군사활동은 자제해 왔다. 대신 한국의 무기수입, 군사훈련 등의 행보에 강경 메시지를 발송하고 미국의 정책적 입장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였다.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면서 SLBM 시험발사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무력대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북한은 예정되어 있던 하계훈련을 소화하고 열병식 또한 저강도로 진행하였다. 당중앙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북한이 새로 개발한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항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강도 위협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북한이 지난 3월 이후 전략무기를 주축으로 하는 고강도 군사위협을 전개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민군이 코로나19 방역, 국경봉쇄, 경제건설 등 다양한 비군사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군이 고도의 경비태세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의료지원, 제재해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 않았기 때문에 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을 자극하여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미국의 관심이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집중되면서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로 관심을

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넷째,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한 지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적 진전을 보여줄 수 없는 한 고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이 미국의 적극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높은 수위의 무력시위 감행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하게 될 수도 있으나, 아직 그 정도의 무력시위를 실행에 옮길 만한 명분이나 계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지원 및 기타 의료·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제재해제까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섣불리 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기회의 창을 닫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북미접촉이 성사된 후 구체적인 대미입장과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일 수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무력시위 수단이 마땅찮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점령으로 인해 미국의 관심이 중동 지역에 쏠리면서 시기적으로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경쟁 상황도 고강도 무력시위 자제에 영향

이 밖에도 현재 북한이 고강도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데에는 미중경쟁 또한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중경쟁으로 의도치 않게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중국을 통한 경제지원 및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입장 지지 등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중국이 북한 핵프로그램의 위험성보다 북한 정권의 안정에 대한 문제를 더욱 중시하면서 외세에 의한 체제위협도 어느 정도 감소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접근을 비판하는 등 비확산 레짐 안에서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제재해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함에 따라 UN안보리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이나 추가 제재 부과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 당국은 미국의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강도 도발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즉 북한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하여 미국과 대치 중인 중·러의 입장을 굳이 난처하게 만들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제재해제와 경제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미중경쟁 상황에서 중국에 완전히 경도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미국의 심리를 이용하여 확실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등 실리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정부 수립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가 등장하거나 강력한 대외 메시지가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핵능력 중추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북한의 방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높여왔는데, 끊임없는 핵능력 증강이야말로 체제생존에 리스크가 가장 적은 대외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대남·대미 억지력 확보와 대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다. 즉 한국의 재래식 전력 강화에 비대칭 전력으로 대응하는 한편, 핵능력 강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전략을 예상해본다면 적정 수준의 위기조성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미국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한편, 협상의 길을 어느 정도 터놓는 전략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직접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을 통한 강한 자극보다는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 흘리기와 호기심 유발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상기하려 들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에 의한 핵시설 재가동이나 신포·남포 지역 SLBM 정비 정황 포착, 열병식을 통한 신형 무기 노출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물론 연말이 가까워질 때까지 북한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외관계에서 찾지 못하고 내부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릴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다면 신형 무기시험을 빙자한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